

EDUTECH FRONTIER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로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다!

테크빌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나눔을 통해
행복한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는
최고의 교육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티처빌

티처빌 www.teacherville.co.kr
교사 연수를 넘어, 교사를 위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 플랫폼

 키즈티처빌

키즈티처빌 kids.teacherville.co.kr
영유아 교사를 위한 교육 플랫폼

 즐거운학교

즐거운학교 school.teacherville.co.kr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기반의
비교과 학생교육 서비스

 부모공감

부모공감 www.bumoschool.com
행복한 부모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

 알기쉬운 코딩

알기쉬운 코딩 www.alco-edu.com
창의적 상상력과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문제 해결능력을
키워주는 방과후학교 SW융합교육 서비스

Vol. 3 | 2018 AUTUMN

티처빌 매거진

Zoom in Focus

스스로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만들고
학생들의 지적 능력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해요

Class Know-How

보고 느끼고 깨닫는 학교연극 프로그램 활용하기
“톡톡” 아이들 마음 다독이는 감정코칭
자유학기제를 부탁해!

Hot EduTech

현직 교사들이 만드는 교과연계 메이커 프로젝트

Interview & People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전쟁 끝내기

가을은

임승천

가을은
한 줌 바람으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지나긴 시간의 몫이다

맑은 유리창속의 눈을 닮고
돌아오고 싶은 나날들이
붉은 사과 열매로 익고 있다

하늘은
자꾸 높아만 가고
아픈 우리 단절의 나무 위엔
늘 타오르는 나뭇잎

오늘은
조용히 갈앉는 무게로
풀벌레 하얀 외침으로
그 안 영혼까지 모두 태울 것이다
내 안 영혼까지 모두 깨울 것이다



Vol. 3 | 2018 AUTUMN

티처빌 매거진

사진 윤여옥

백두산 북파천지에서 서파천지로 가는 길의 단풍
서울목문초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서 활동중이다.
<http://www.photoyyo.com>

시 임승천

1985년 월간 《심상》으로 등단하였고, 2009년
기독교문학상과 2014년 월간문학상을 수상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은퇴하고 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발행처

테크빌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
(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18년 9월 13일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 홍보팀 / 티처빌 매거진 TF

디자인·인쇄

(주)태산애드컴 T. 02-2268-2488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ONTENTS

티처빌 매거진 2018 가을호



Zoom in Focus

- 04 스스로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만들고 | 정종욱
- 08 학생들의 지적 능력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해요 | 정소희
- 10 LCSI 종합성격검사로 내 현재 상태를 살펴보자 | 서준호
- 12 전인구 쌤과 함께 추석 전통놀이를 체험하다 | 티처빌연수사업부



Class Know-How

- 16 보고 느끼고 깨닫는 학교연극 프로그램 활용하기 | 정소희
- 18 “톡톡톡” 아이들 마음 다독이는 감정코칭 | 장경진
- 21 삶의 축수를 세우는 생생한 현장교육 | 안민영
- 24 종이 평화의 소녀상 세우기 캠페인 | 장은은
- 28 자유학기제를 부탁해! | 유소연



Hot EduTech

- 32 현직 교사들이 만드는 교과연계 메이커 프로젝트 | 김은영
- 34 VR 분야, 한·중 기술 격차 존재하지 않는다 | 이상엽



36



Interview & People

- 36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 윤민영
- 40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전쟁 끝내기 | 장경진
- 42 무수한 시행착오가 가능한 학교교육을 꿈꾸다! | 박향선

Teacherville News

- 44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 50 2018년 티처빌연수원 하반기 학사 일정
- 51 티처빌연수원 신규과정 소개



48



54

Inside Culture

- 52 떠나자, 즐기자, 느끼자, 가을 그리고 축제 | 이성희

Book

- 56 신간소개 - 수업이 즐거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 하브루타, 질문 수업에 다시 질문하다 / 학교와 마을이 하나되는 전통놀이



55

Cartoon

- 58 교사 일상 웹툰 - 권선생 단상툰 | 최성권



스스로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만들고

경북초 여름방학 메이커 캠프

글. 정종욱 브레이너리 대표

캠프는 다른 과정과 달리 매우 집중적인 작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압축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지난여름 국내 최초로 전학년에 메이커교육을 정규과정에 도입했던 경북초등학교의 캠프가 있었습니다. 캠프는 'Junior Maker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기획되어서 약자로 JUMP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캠프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캠프는 로보틱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어쩌면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함께 고민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자신의 결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이들 경험·수준에 따라 난이도 달리 적용

전체적인 주제는 로보틱스지만 학년별 아이들의 경험과 수준에 따라 그 난이도를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을 보다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손으로 만드는 아날로그 메이킹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난이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생각하는 과정과 손으로 만드는 과정까지는 동일하였으나 여기에 프로그래밍 요소를 더하고 제어의 요소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가능한 자동차였습니다.

많은 국가나 교육기관이 융합교육과 스팀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주제와 과목이 효과적으로 섞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인들에게도 자신이 가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수평적으로 융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융합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과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구와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융합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경북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에 진행한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과제를 설정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배우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STEAM 등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융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메커니즘 구현과 이해가 핵심

이번 여름캠프에서는 움직임의 주제로 어떻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이해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1~3학년의 저학년은 간단한 바퀴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드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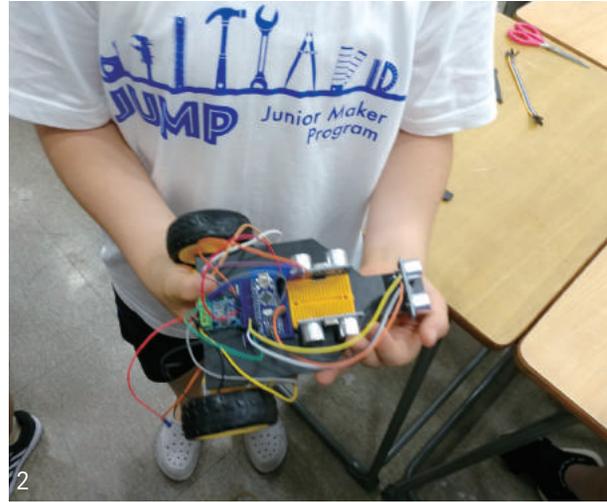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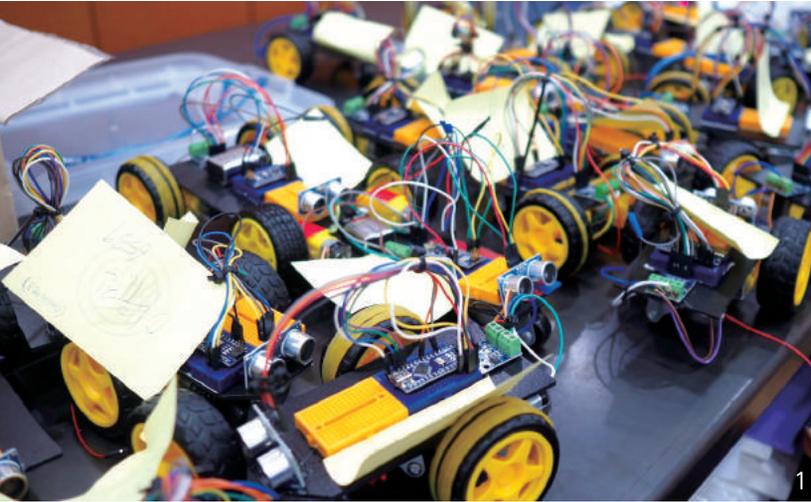
1. 상상을 구체화하여 만들어낸 나만의 자동차.
2. 상호지지구조 세팩타크로 만들기.

경북메이커캠프

JUMP

JUNIOR
MAKER
PROGRAM





빙 메커니즘을 1차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난이도에 맞춰 2족 보행을 위한 워킹 메커니즘을 배우고 만들어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장애물을 넘어 다닐 수 있는 웨그로봇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현대의 로봇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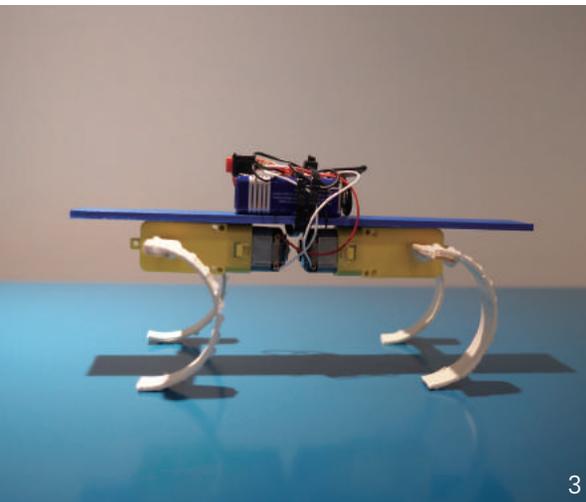
여기에서 눈 여겨볼 만한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1~3학년 저학년 아이들조차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모터를 건전지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이용해 작동과 정지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에만 선생님들의 도움을 요청했을 뿐 이튿날부터는 전선 연결에 있어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될 정도로 자신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4~6학년의 고학년은 4일 동안 보다 높은 난이도의 한 가지 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아두이노 기반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두이노에 대해 100% 이해하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프로그래밍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수준까지는 다다르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작동하고, 각 소스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딩 자체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며 컴퓨터로만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삽입하는 코드가 실제로 나타날 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해하여 응용해보고 도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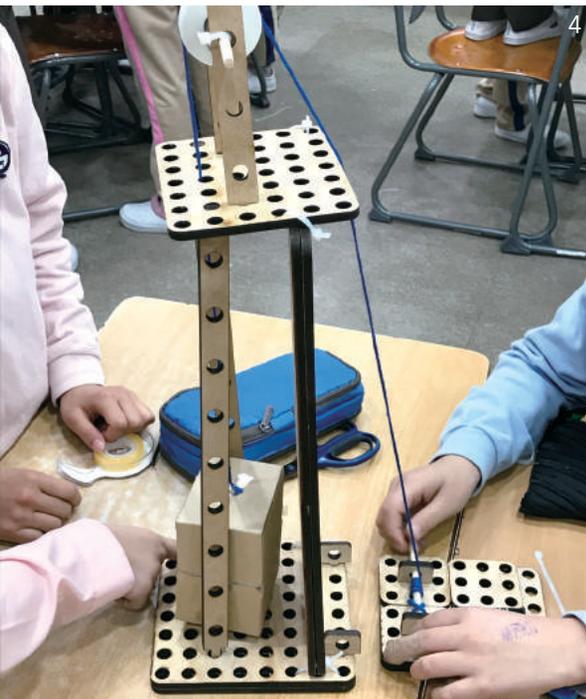
1. 고학년 학생들이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들.
2. 한 학생이 자신이 만든 자동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여름캠프에서는 움직임을 주제로 어떻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이해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3



4

3.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웨그로봇.
4. 엘리베이터를 통해 도르레 운동의 기초적인 형태를 이해한다.

어려운 과제 해결하고 넘어섰을 때 희열과 재미 느껴

학생들의 성장은 적절한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보다 높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할 수 없었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함께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약 120명 참여하는 대규모 캠프였고, 4일 동안 3시간씩 이루어지는 매우 집중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주제는 같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만들면서 때로는 힘들어 했지만 모두 즐겁게 과정을 마쳤습니다.

세이모어페퍼트 교수는 하드펀(Hard Fun)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드펀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를 접하고 이를 해결하여 넘어섰을 때 교육에서의 큰 희열과 재미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런 재미를 느낀 사람은 앞으로도 고난이도의 과제를 접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은 벽에 부딪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며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자기 수준에서 높은 과제는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캠프라는 형식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극복해 내며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실현한 의미 있는 시간

메이커교육에서 많은 교육기관들이 기술 혹은 장비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술은 도구입니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아이들의 생각은 닫힐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창의성이 열리기 위해서는 정해진 과정을 따라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경북초등학교의 캠프는 이 과정을 아이들과 경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프를 경험한 짧은 4일은 기억이지만 학생들에게는 한 단계 성장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몰라서 두려웠던 것이 해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고 좀 더 어려운 과제도 해낼 수 있다는 도전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2가지 자신감과 도전정신은 학습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만들어 보고 자신의 생각을 현실화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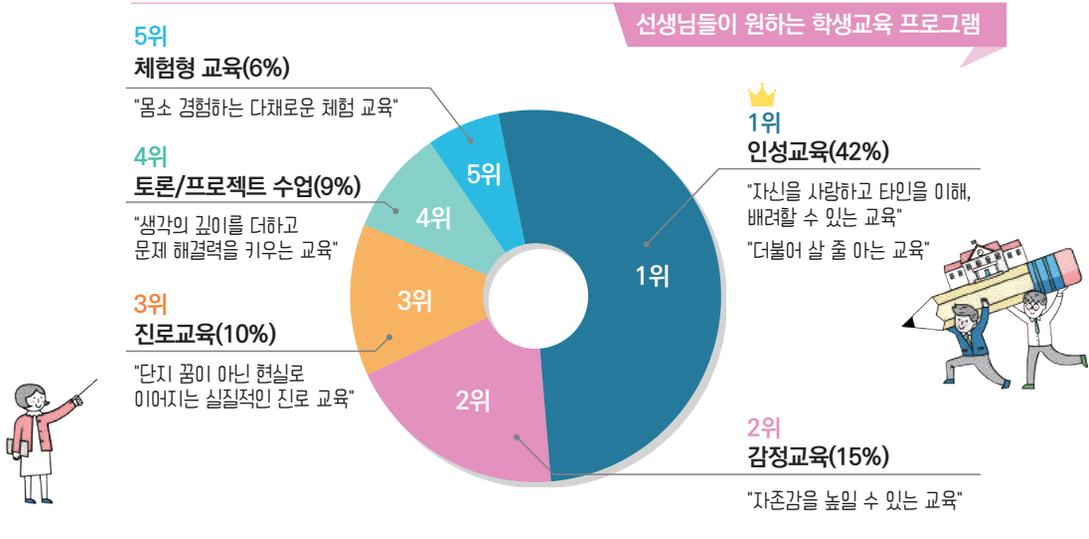
이번 캠프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그 과정을 견디고 성장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힘이 될 경험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

학생들의 지적 능력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해요

‘즐거운학교’ 앙케이트 **이런 학생교육 하고 싶다**

글. 정소희 미래교육사업부 선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교육은 무엇일까. 공교육 기반의 비교과 학생교육서비스 플랫폼 ‘즐거운학교’에서 지난 6~7월, 전국 초·중·고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런 학생교육 하고 싶다’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학교 수업의 변화 방향과 모습에 대해 고민 많은 선생님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한데 모였다.



이벤트에는 총 148명의 선생님이 참여하여 댓글을 남겼고, 그 중 42%가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꼽았다. 학업성취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상 공부법·진학컨설팅 등 학습 관련 주제가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 학생들의 지적 능력보다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2위로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감정·심리 교육이 15%, 그 다음으로 꿈이 아닌 현실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10%,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9%, 몸소 경험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6% 순이었다. 그 밖에 자기주도학습법, 환경교육, 메이커교육, SW 교육, 예방·안전 교육, 책 쓰기, 게임활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뭐니 뭐니 해도 ‘인성’이 우선

인성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으로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나 교육, 실천방안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해주고 싶어요.”, “이기적인 학생이 많아지고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예의·신뢰·배려 등을 실천적으로 교육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계속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등 선생님들의 의견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바른 인성이 창의융합인재의 기본 요소로 꼽히는 만큼,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선생님들의 열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2항

왜 인성교육일까 - 사람다운 사람으로 기르는 일

사회적 약자를 향한 팔시와 횡포, 총동적인 범죄와 폭력, 이기주의 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여러 문제는 바르지 못한 인성에서 비롯된다. 인성은 한 사람의 생각·감정·행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심미·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의식, 갈등관리 역량 등도 인성을 기본으로 한다.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즐거운학교의 맞춤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즐거운학교 프로그램은 인성교육주간 및 체계적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 특성과 학사일정, 예산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 가능하다. ①



🔊 마음의 틀을 바꾸는 감정수업

21세기 인성역량을 위한 감정 조절 및 감정표현 프로그램

- 추천학년: 초등(3학년 이상), 중·고등
- 수업형태: 6~9차시



🔊 내 안의 긍정에너지 활용백서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잠재력을 키우는 강점찾기 프로그램

- 추천학년: 초등(5학년 이상), 중·고등
- 수업형태: 3~6차시



🔊 나와 우리를 바꾸는 감정조절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 추천학년: 초등(3학년 이상), 중·고등
- 수업형태: 6차시



🔊 학교연극 프로그램

희망 주제에 맞게 진행되는 맞춤형 힐링 연극 프로그램

- 추천학년: 초등(4학년 이상), 중·고등
- 수업형태: 기본(연극공연) 60분, 심화(학생 참여형 강의와 연극공연) 60분



🔊 LSCI 심리검사 패키지

성격·진로·학습검사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 자기이해 프로그램

- 추천학년: 초등(3학년 이상), 중·고등
- 수업형태: 6차시 / 1일 캠프형

LCSI 종합성격검사로 내 현재 상태를 살펴보자

글. 서준호 신창초등학교 선생님



자신의 상태에 대해 미리 겁먹고 불안해하지 말자

교사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2학기에 학교생활을 더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몇 명의 교사를 만났곤 했다. 그들은 학교 내 여러 관계에서도 상처 받고, 수업과 업무에서도 좌절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이라 생각해 혼자 끔찍 앓는다.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위로받거나 객관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곳에 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그곳에서 받을 진단명이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 미리 겁먹고 불안해한다.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곳에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끊임 없이 상상해보거나 때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온라인 검사지 이용해 '현재 상태' 파악해보길

난 그들에게 우선 온라인 검사지를 이용해 '현재 상태'를 파악해 보길 제안한다. 검사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닌 '현재 상태'일 뿐이다. 먼저 '현재 상태'를 검증하고, 객관적인 도구를 이용해 살펴봐야 정말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진단'과 '직면'에서 시작한다. 검사결과에서 힘든 상태로 나오면 조금 더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고,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보길 판단하도록 돕는다.

인증 받은 LCSI 종합성격검사 추천

내가 주로 사용하는 검사도구로, 림스연구소에서 제공하는 LCSI (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 종합성격검사를

추천한다. 이 검사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자격 수련 심리검사로 유일하게 인증 받은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러 검사지를 구매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길 바라는 의미로 '성인용/고급'을 추천한다. 상담사가 해석해주듯, 표지포함 19페이지에 걸쳐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검사지의 하위 척도 측정 결과, 성격, 대인관계, 조직적응, 정신건강, 리포트의 음영처리가 된 곳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힘든지를 기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다독이자

내 결과가 High, Very High에 몰려 있다면 힘든 '현재'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런 뒤, 절대로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이 결과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 지금 힘들구나. 몰라줘서 미안해. 너 지금까지 정말 애썼어. 지금까지 혼자서 충분히 잘 해왔으니까 이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자"라고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다독이자. 그런 뒤, 주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고, 때론 전문가들에게 조언 받고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나를 위로해 주자. 음영처리 된 척도 결과가 Very Low, Low 쪽에 있다면, 현재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고, 그 힘이 있으니 앞으로 도 잘 해결해 나갈 거라며 내가 나를 쓰다듬어 주고, 그 힘을 주변 힘들어하는 선생님에게도 나눠주자.

주변에 힘들어하는 선생님도 권해보자

림스연구소(<http://www.lcsi.co.kr>)에 접속해 온라인에서 검사지를 구매한 뒤, 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컴퓨터 앞에 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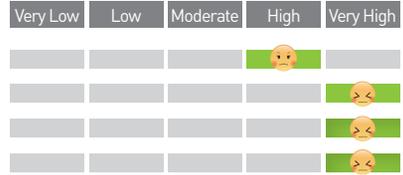


LCSI (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
종합성격검사 샘플보기

LCSI 종합성격검사 성인용/고급, 일부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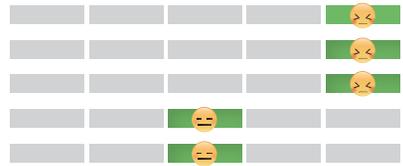
성격

- 스트레스와 부적응의 정도
- 긴박감 조급함 등으로 인한 과잉긴장 경험
- 자기중심적이 냉담한 강인성
- 욕구나 유혹을 잘 참아내지 못하는 충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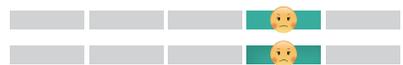
대인관계

- 작은 실수와 충동적 행동으로 인간관계 손상
- 타인과 일관되고 안정적인 거리 유지를 잘 못함
- 말과 행동에서 자기통제가 안되는 행동 경향성
- 타인들의 의식하고 불편해 하는 비사교성
- 스트레스 상황에 의존적이 되고 상처받기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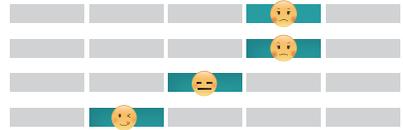
일처리

- 충동적으로 동시다발 처리경향성
- 오랫동안 머리쓰기를 싫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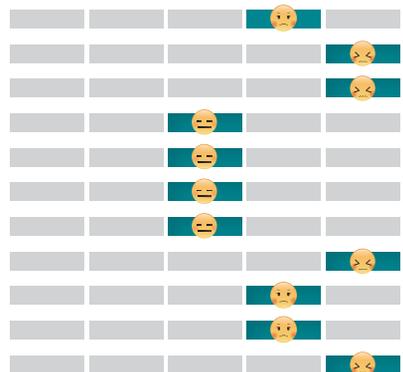
조직적응

- 직업에서의 무증감과 성취결여
- 업무로 인한 과도한 피로와 정서적 소진
- 직장내 동료들에 대한 무관심
- 가정사와 직장일 서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정신건강

-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러움
-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쉽게하는 경향성
- 정서적 불안정성과 대인관계 예민성
- 구체적이지 않은 걱정과 불안
- 의기소침 우울 미래에 대한 비관
- 건강에 대한 염려 및 신체증상호소
-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흥미부족
- 사회적 접촉의 단절 및 자기불만
- 타인에 대한 의심이나 피해의식
-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억압과 부인
- 격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표현



아 20~30분 정도 149문항을 집중해 답하면, 마이페이지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나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힘들어하는 선생님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며 살짝 권해드리는 것도 좋다. 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적용 가능하니 가족이 함께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아무쪼록 이 검사가 전국의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약력 서준호

- 원광대학교 동서보원의학대학원
- 예술치료학과 연극치료 석사
- 심리극(psychodrama), 가족세우기 치료사
- LCSI(Lim's Character Style Inventory) 성격유형검사 전문강사
- 티처빌 (서준호 선생님의 고학년 학급운영) 강사



추석특집!

전인구 쌤과 함께 추석 전통놀이를 체험하다

글. 티처빌연수사업부



전인구 선생님

- 세종시 미르초등학교 교사
- 스포츠클럽 지도교사 및 전국대회 입상
- 마을공동체 교육연구회장
- 전통놀이 연구회장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놀이를 체험하고자 티처빌연수원의 '서쌤과 전쌤의 배틀! 전통놀이' 강사, 전인구 선생님을 찾아 나섰다.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충남 공주의 하늘은 높푸르고 들판은 가을빛을 머금고 있었다. 백제의 미소를 닮은 선생님이 넉넉한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1. 추석에 하는 전통놀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쌤

추석 때하는 유명한 전통놀이로는 씨름과 강강술래가 있어요.



미소튜터

씨름은 명절 때마다 TV로도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씨름을 해도 괜찮을까요?



전쌤

체육교과에 씨름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추석과 연계해서 씨름을 배우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단, 씨름의 특성상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간단한 기술과 약속된 패턴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불꽃튜터

강강술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쌤

강강술래는 음력 8월 한가윗날 호남지역에서 널리 놀았던 여성 단체놀이예요. 민속춤과 민요가 함께 들어가 있죠. 추석에 대해 배우면서 아이들과 운동장에 나가서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학교나 가정에서 해볼 만한 놀이를 소개해주세요.



전쌤

간단한 놀이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투호는 살[矢]을 던져서 통에 많이 들어가면 이기는 놀이예요. 단순해 보여도 막상 하면 재미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전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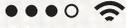
이번에는 구슬치기에요. 삼각형을 땅에 그리고, 밖에서 구슬 하나를 던져서 선 밖으로 튕겨 나간 만큼 가져가는 놀이입니다. 생각보다 구슬 맞추기가 어려워요. 튀겨서 맞추기, 굴려서 맞추기 등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전쌤

비석치기를 해볼까요? 비석치기는 손바닥만 한 납작한 돌이나 나무토막으로 일정 거리에서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맞추는 놀이예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재료가 단순해서 놀기 좋아요.





전쌤

여기 사방치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땅에 8까지 칸을 그리고, 돌을 던져 가며 하는 놀이인데요, 규칙이 단순하면서도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해요. 제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 돌을 1부터 특 하고 던져서 요리조리 통통 튀어가는 놀이가 사방치기다. 8단까지 하고 뒤로 돌을 던져 놓인 숫자는 자기 땅이 된다. 그러면 상대는 내 땅을 밟지 못하므로 놀이의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3.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외국의 전통놀이도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전쌤

명절에 곳곳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베트남 제기라고 하는 '따가오'예요. 따가오는 스프링이 달려서 생각보다 꽤 많이 나가요. 그래서 배드민턴처럼 경기할 수도 있죠.



전쌤

이번에는 태국의 전통놀이인 '코코넛 밟기'(던 까라)를 해봅시다. 코코넛 야자수 나무 열매를 반으로 잘라 만든 샌들을 신고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게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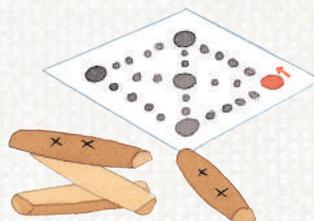
전쌤

어렸을 때 공기놀이 많이 했죠? 실내에서 하기 좋은 놀이예요. 우리나라 공기놀이와 베트남 공기놀이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 공기는 탕탱볼 같은 고무공 하나와 열 개의 막대가 있어요. 한 손으로 공을 튀기고 잡기 전까지, 다른 한 손으로 막대를 잡는 것이예요. 1단부터 10단까지가 있습니다.



전쌤

필리핀의 '송카'라는 놀이는 나무판에 진주알 7개씩 넣고, 한 칸에서 꺼낸 진주알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씩 놓아가면서 하는 놀이예요. 둘이서 한 번씩 기회를 번갈아가며 둔다는 점에서 바둑·장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한 번 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니까 명절에 바쁜 어른들을 방해하지 않고 아이들끼리 잘 놀 수 있어요. 계란판과 바둑돌로 대체할 수 있는 놀이여서 명절날 즉석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전통놀이 연수 및 도서



[1학년] 서쌤과 전쌤의 배틀! 전통놀이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는 전통놀이



볼꽃튜터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통놀이가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줄 오늘에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전쌤

전통놀이 규칙을 상황에 맞게 잘 변형시키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덕분에 저도 이번 추석을 맞아서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해볼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고 느끼고 깨닫는 학교연극 프로그램 활용하기

글. 정소희 미래교육사업부 선임



인천 검단고등학교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1회 1학년을 대상으로 심리코칭을 활용한 교육연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당에 1학년 학생 전체가 모여 생명존중, 학업중단예방, 흡연예방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겪는 다양한 상황을 주제로 한 연극을 관람하는 형태다.

이해와 공감 이끌어내는 학교연극 프로그램

인천 검단고등학교 안우경 선생님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학업중단예방 심리코칭극을 접하게 되었고, 그 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학교연극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학교연극 프로그램을 찾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처럼 다소 무거운 주제로 연극을 꾸며낼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많았지만, 적절한 수위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상황을 대변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결국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학업중단예방을 주제로 할 때는 학교를 떠나는 자퇴생들의 가정환경 및 심리적인 배경을 전달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최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 학교생활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1. 학교연극 프로그램 게시물.
2. 전문 배우들의 연극 공연 장면.

학교 맞춤 진행으로 만족도 높아

그렇다면, 학교의 반응은 어떨까. 학교의 지리·지역적 특성상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고, 이를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인데, 전문가 집단의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난 것은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이다. 학교 특성에 맞게 원하는 주제로 연극이 공연된다는 점도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한 편의 연극으로 최대의 교육 효과를

성폭력 예방 교육, 정보통신 교육, 자살예방 교육 등 학교에서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동영상 시청이나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학교연극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연극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에 강의식 교육보다 몰입도와 설득력이 강해 매우 효과적이다. 교육의 진정한 효과는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연극은 배우의 연기를 통해 교육 내용이 현장감 있게 전달되고 정서적으로도 침투되어 그 효과가 높다. 더욱이 연극 관람 자체로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 정화가 될 뿐만 아니라, 감정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학교연극 프로그램은 공교육 기반의 비교과 학생교육서비스 플랫폼 즐거운학교와 28년간 심리상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인성교육 전문기업 한국드라마치료연구소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심리연극이라는 특별한 장르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연극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즐거운학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①

○ 한국드라마치료연구소 소개

불안정한 가족관계의 영향을 받아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연극공연과 드라마를 활용해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가족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즐거운학교와 학교연극을 운영하고 있다.

○ 프로그램 문의

정소희 선임
school@teacherville.co.kr
070-8282-0140

“톡톡톡” 아이들 마음 다독이는 감성코칭

자료제공. 최성애 박사·조벽 교수 HD행복연구소
글. 장경진 미래교육사업부 선임

요즘 아이들은 학업뿐 아니라 진로 고민, 사춘기 방향까지 모든 것이 힘들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힘들다. ‘힘들다’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선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어떤 유형의 교사일까?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매번 속이 뒤집어지고 감정이 상하며, 아이들과의 관계가 항상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가트먼 박사는 아이들의 감정적 상황에 대하여 네 가지 양육자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아이들은 양육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자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형 1 | 축소전환형

- 아이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김.
- 아이의 부정적 감정이 빨리 사라지도록 격려함.
- 아이의 감정을 놀리거나 농담 삼음.
- 아이의 감정은 비이성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믿지 못함.
- 아이의 나쁜 감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음.

유형 2 | 억압형

- 축소형과 흡사하나 훨씬 부정적으로 반응함.
- 아이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꾸짖음.
-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훈계함.
- 부정적 감정을 꾸짖거나 벌주는 등 훈육함.
- 부정적 감정은 억제하거나 자제해야 한다고 믿음.
- 부정적 감정은 나쁜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믿음.
- 부정적 감정을 쓸데없는 낭비나 사치라고 여김.

유형 3 | 방임형

-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큰다고 믿음.
- 나쁜 감정도 허용하고 격려함.
- 선도하거나 대안을 찾아주지 않음.
- 감정에 대해 올바르게 지도해주지 않음.
- 무제한 허용함.
- 감정은 다 분출해야 좋다고 믿음.

유형 4 | 감성코칭형

- 모든 감정은 허용하나 행동에는 제한을 둬.
- 아이의 부정적 감정은 좋은 교육 기회라 여김.
- 아이의 감정을 잘 들어주고 시간을 허용함.
- 감정에 대해 훈계하지 않고 공감해줌.
-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안내해줌.
- 대안을 제시하거나 함께 모색함.
-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주고 격려함.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법

- ① 심장에 집중하여 천천히 호흡한다.
- ② 고마움을 느낀다.

감정코칭의 Tip

- ① 순둥이형: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제시.
- ② 체제거부형:
테두리 안에서 모험할 수 있는 환경 제시.
- ③ 대기만성형:
아이의 속도에 맞춰 충분히 공감해준다.

그렇다면 감정코칭형이 되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가트먼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년에 약 3번 정도 아이에게 감정코칭을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생님이 먼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아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행동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감정조절을 못 하는 사람일 수록 강한 감정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있을 때면 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보다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법을 소개한다.

효과적인 감정코칭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감정코칭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언제나 효과적이지도 않다. 감정의 영역은 매우 예민하고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감정코칭을 어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면, 본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속아 넘어가지만 결국 조정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어 신뢰감이 무너지고 소통이 단절되며,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감정코칭을 위해서는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기질을 크게 3가지로 나뉘었을 때 감정코칭의 팁은 다음과 같다.

아이와의 행복한 소통법, 감정코칭 5단계

- 1단계 **감정을 포착한다.**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읽어주세요.
- 2단계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여긴다.**
강한 감정을 보일수록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의 속마음을 헤아려주세요.
- 3단계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한다.**
'서로 다가가는 대화법'으로 아이의 감정에 귀 기울여주세요.
- 4단계 **감정을 명료화하여 이름을 붙인다.**
불확실한 감정을 구체화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 5단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끈다.**
'무엇'과 '어떻게'로 적절한 질문을 해주세요.

“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내용' 때문이
아닌 '상호작용의 방식'의
문제다.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코칭은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

5단계로 이루어지는 감정코칭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
 감정코칭을 위한 몇 가지 Tip을 소개한다.

Tip

- 1 남의 말에 충고하기 전에 공감과 이해부터 해주세요.
- 2 질문을 하게 될 경우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그 일에 대해서 더 말해줄래?/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고 싶어? 등.
- 3 나의 신체적 상태와 감정적 알아차림, 생각의 알아차림
 그리고 주변(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상태)의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 4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감정의 겹을 벗겨내야 합니다.



마무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내용' 때문이 아닌 '상호작용의 방식'의 문제다.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코칭은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교사부터 감정코칭에 익숙해지는데 최소 21일 이상이 필요하며, 긍정적 정서가 쌓이고, 읽고 반복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변화가 오게 마련이다. 만약 앞서 소개한 감정코칭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①

- 언제부터 그랬어?
-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 기분이 어때?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
-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니?
- 그래서 넌 무엇을 하고 싶어?
- 네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야?
-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해줄 수 있겠니?
- 기분을 1~10으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니?





삶의 축수를 세우는 생생한 현장교육

수성동계곡

글. 안민영 북인천중학교 역사선생님

“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목표로 삼는 건 온몸이 축수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의 날씨,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 하나 흘려보내지 않고, 사람과의 만남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해요. 풍요롭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얼마만큼 감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 풍요와 빈곤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삶의 풍요는 감상의 폭이지요.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동을 잘 받는다는 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 박웅현 《책은 도끼다》 발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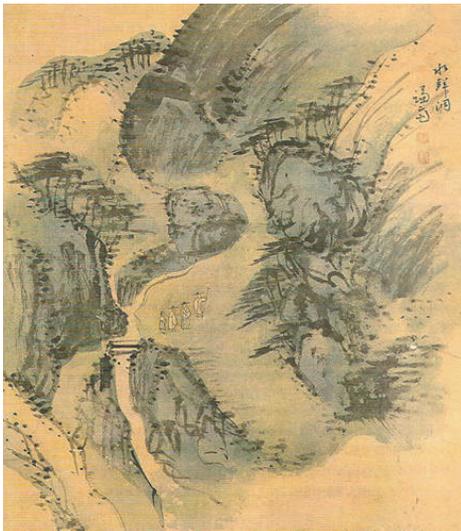
‘일상을 읽어내는 훈련’의 최적지는 박물관과 미술관 쉬는 시간 10분은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메신저 답장을 보내고, 공문계시판 한 번 읽고 나면 수업 시작 종이 친다. 다음 교시 수업할 에너지를 끌어올리기도 전에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일이 반복된다. 숨이라도 쉬고 싶어 책의 짧은 글을 허겁지겁 읽는다. 동료 교사의 말마따나 깊이 잠수했다가 잠깐 올라와 인공호흡 받는 듯한 힘을 받곤 한다.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 하나 흘려보내지 않고, 사람과의 만남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삶”이라는 구절에 밑줄을 긋는다. 교실에서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는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이 그 제야 다시 보인다.

‘일상을 읽어내는 훈련’은 복잡복잡한 학교 안에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무언가를 ‘읽어내는’ 것이 주는 기쁨을 나는 살짝 맛보았고, 교실의 아이들과도 나누고 싶다.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 중 하나는 박물관과 미술관이다. 여기에 여행과 답사 활동은 삶의 축수를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요즘 들어 박물관 체험이나 유적지 답사가 사교육 시장의 새로운 상품으로 대두하면서, 문화 자본마저 계층화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내가 교실에서 가르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삶의 축수를 세우며,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광화문에서 고작 10분, 아주 가까운 수성동계곡

안녕하세요. 북인천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안민영이라고 합니다. 앞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풀었네요. 저는 박물관이나 유적지 답사 활동을 공교육 내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한 사람입니다. 좋은 수업에 대한 고민처럼 '좋은 답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과 함께 박물관에 가 보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교과서에서 봤던 유물 앞에 서서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보고 싶은 것'이기도 한 셈입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간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학생들이 보고자 하는 축수를 세운다는 걸 알게 된 장면입니다. 아이들과 답사하기 전에 몇 장의 사진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장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딱 좋을 곳이죠. 바로 서울 종로구 서촌에 있는 '수성동계곡'입니다. 현대사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기록될 광화문에서 고작 10분 거리에 수성동계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준비 끝, 수성동계곡으로 출발!

먼저 그림 한 장을 볼까요. 조선시대에 활동한 화가 겸재 정선이 그린 수성동계곡 풍경입니다. 머리에 갓을 쓴 선비 세 명과 시중을 드는 아이 한 명이 뒤따라 걷고 있습니다. 맨 앞사람은 주위 풍경을 감상하는 듯하고, 뒤따르는 둘은 서로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합니다. 큼직하고 압도적인 바위에 비해 사람들은 무척 작게 그렸네요. 수성동계곡을 찾아 올라가는 길은 여느 계곡을 오르는 길과 다릅니다. 주먹가 좁은 골목길이 이어지죠. '숲속도 없는 이런 도심에 무슨 계곡이 있을까' 의심이 들 때쯤 갑자기 인왕산 풍경이 펼쳐집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조금씩 모습을 보이던 인왕산도 전체 모습을 드러내죠. 종이부채가 접혀 있다가 어느 때 차르르 퍼지면서 부채 속 풍경이 한 번에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수성동계곡이 처음부터 이런 풍경이었던 건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왕산 아래까지 아파트가 있었지요. 정면에 보이는 넓은 바위 암반 위로 1970년대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최근 아파트가 철거되고 겸재 그림 속 수성동계곡처럼 복원이 되었지요.

1. 겸재 정선 <수성동계곡> 속의 기린교.
2. 1950년대 기린교.
3. 2000년대 기린교.



하나의 움직임이 작은 기적을...

종이 평화의 소녀상 세우기 캠페인

글. 장은은 티처몰사업부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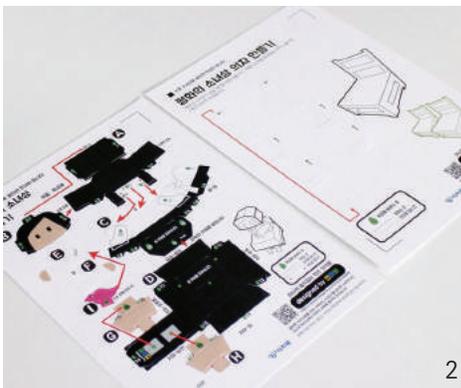


지난 8월 14일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처음 맞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다. 티처몰에서는 지난 6월부터 판매수익금 전액기부와 함께 종이 평화의 소녀상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위안부와 평화의 소녀상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이후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피해사실을 알리기 시작했고, 2012년 12월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8월 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2017년 12월, 정부 차원의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생존하고 계신 피해자 할머니는 27명으로 평균연령은 91세다.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이 1,000회를 기념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모금으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로 세운 동상으로 김운성·김서경 작가의 작품이다.





2



3

1. 국내 및 전 세계에 세워진 종이 평화의 소녀상 SNS 인증샷.
2. 종이 평화의 소녀상 정식 상품.
3. 세계 곳곳에 세워진 종이 평화의 소녀상 인증.



누구나 쉽게 만들고 세울 수 있는 모두의 소녀상

인천 검단고의 미술쌤, 문종배 선생님은 철거의 우려와 공간적 제한이 있는 금속 소녀상 외에도 누구나 세울 수 있는 모두의 소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종이로 만드는 소녀상.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김서경·김운성 작가가 흔쾌히 원작 이미지 사용을 허가해주었고, 문종배 선생님의 종이공작 노하우가 만나 종이 평화의 소녀상이 만들어졌다. 종이 소녀상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가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직접 세울 수 있다. 금속 소녀상이 갈 수 없는 국내, 세계 곳곳에 세워져 과거 일본이 저지른 악행을 널리 알리고,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위한 바람으로 몇 해 전부터 종이 소녀상을 기획하고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올해 6월, 티처빌과 함께 더 많은 교육현장에서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정식 상품화되었다.

전 세계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소녀상 세우기 SNS캠페인

일본·미국·멕시코 등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 또는 연수를 다녀오신 선생님이 머물렀던 곳곳에 종이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인증샷들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국내 국외 곳곳에 평화



4. 인천검단고 종이로 만드는 소녀상 수업.

의 소녀상을 세우고, 그 인증샷을 SNS에 공유하여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움직임이 작은 기적을 판매수익금 전액 기부

그동안 문종배 선생님이 직접 기획·제작 및 활동을 이어오다가 올해 티처몰과 콜라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량상품화 되었고, 더 많은 학교와 기관에서 종이 평화의 소녀상을 찾게 되었다. 종이 평화의 소녀상의 판매수익금과 문종배 선생님의 기획료 모두 분기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된다.

올바른 역사인식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소녀상 수업

종이공작인 종이 평화의 소녀상 만들기는 역사·미술을 포함하는 융합교과수업에 효과적이며,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칼과 가위가 필요 없이 목공품만으로 만들 수 있어 학생들에게 난이도는 낮으면서도 재미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티처몰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문종배 선생님의 수업 팁과 상품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녀상 받침대 도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㉓

○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영화



〈허스토리〉 2018



〈아이 캔 스피크〉 2017

그 외

〈귀향〉 2016, 〈22〉 2018 다큐멘터리, 〈눈길〉 2017, 〈소리굽쇠〉 2014, 〈낮은목소리1~3〉 1995~2000년 다큐멘터리

○ 위안부를 기리는 장소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20
나눔의 집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일본군 성노예제를 주제로 세계최초로 세워진 역사관으로 1998년 8월에 개관
[사진출처]네이버플레이스 포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20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간으로 2012년 5월 5일에 개관
[사진출처]네이버플레이스 포토

○ 위안부 관련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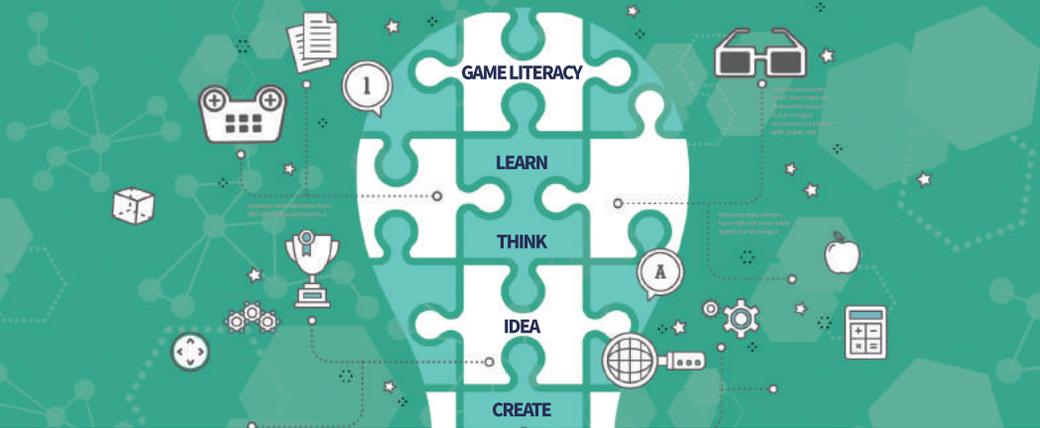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www.hermuseum.go.kr/
나눔의 집 www.nanum.org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www.womenandwar.net

○ 평화의 소녀상 상품문의 1544-7783(내선 2)

게임리터러시 교사 직무연수 (온라인 9차시+오프라인 6차시)

교사를 위한 게임리터러시 교사 직무연수

게임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게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더 나아가 교과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연수 신청 | 10월 중 선착순 접수 예정

교육일정·장소 및 세부 커리큘럼 | 10월 중 홈페이지 공지
연수 홈페이지: <http://gschool.or.kr> 고객센터: 1644-5932

* 연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연수 신청 정보 문자 안내 예정



교육과정
(15시간)

온라인
9차시

오프라인
6차시

수료 시 인정학점
생활지도 부문 1학점

(온라인 9차시) 이론·사례

(오프라인 6차시) 체험·실습

공통 2차시

전문가강연 질의응답형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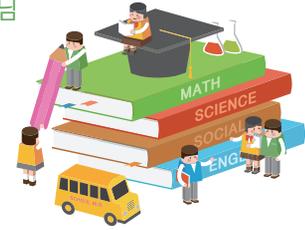
선택 4차시

7개 분반 중 택1
(게임의 교육적 활용 및 체험지도 관련 주제)

자유학기제를 부탁해!

글. 유소연 티처몰사업부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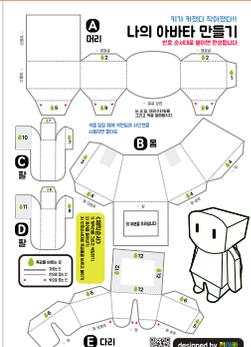
2016년부터 실시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었다. 다양한 교과 외 수업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야 하는 만큼 선생님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새로운 수업방법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연구에 집중하는 선생님께 각 활동별 상품을 추천한다. 티처몰은 현직 중학교 선생님들이 감수한 자유학년제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다.



진로탐색 활동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 상품기획 | 문중배 선생님(인천 검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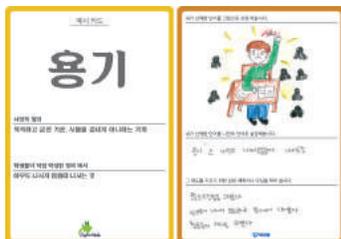
« 실제 자유학년제 미술교과에서 사용한 인증된 교구. 선생님이 직접 디자인! 나의 미래 모습을 표현하자.

921310 나의 아바타 만들기

» 미덕과 진로 수업을 동시에! 학생들의 실제 수업내용이 샘플로 들어 있어요.

922225 꿈꾸는 고래카드

922226 꿈꾸는 고래카드 점착메모지



| 상품기획 | 최선경 선생님(대구 경북사대부중)



예술·체육 활동

연극·뮤지컬·오케스트라·디자인·축구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 체육 교육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찾을 수 있다.

에코백에 담는 명화

897248 두두엠 영화의 재구성 에코백 만들기(베르투스)



빙판 없이도 즐기는 컬링

381379 컬링세트 2

동아리 활동

+ 문예토론·과학실험·천체 관측 등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학생의 특기와 적성은 물론 자율적
문제 해결력을 키워준다.



윌리엄 김 선생님 추천

922279 스카이킥(SKY KICK) 미니드론볼

전통공예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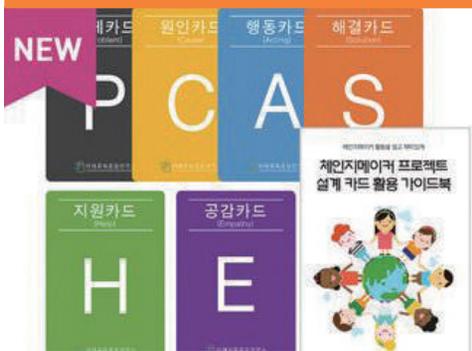
922136 한지 미니서랍장 키트



주제선택
활동

헌법, 경제·금융, 고전 토론, 체험 수학, STEAM 과학 등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맞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상품기획 | 이은상 선생님(미래교육공감연구소)



◀◀ 사회현상의 해결책을 학생들이 찾을 수 있게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해보자.

922272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설계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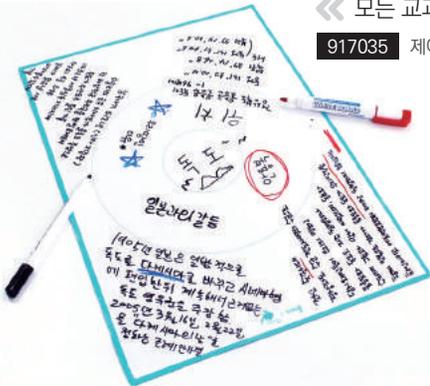


◀◀ 독도는 우리땅

898677 DIY 독도 텀블러 만들기

◀◀ 모든 교과 토론 수업에 딱!

917035 제이커스 써클맵 화이트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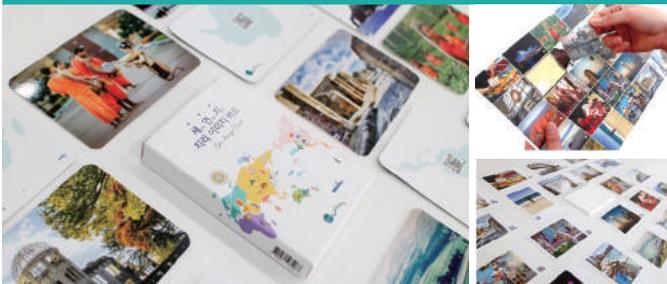
| 상품기획 | 김재우 선생님(성남 문원중)



모든 교과 토론 수업에 딱! >>

898042 제이커스 DIY 전통제본 노트

공통사회 교사 연수 교구



◀◀ 세상을 연결하는 지리 교구시리즈 지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자.

- 916355 세연지 지리이미지 카드
- 921691 세연지 지리이미지 엽서북
- 921692 세연지 지리이미지 스티커

선생님! 학부모교육 고민이세요?



티처빌이 만든 부모교육 전문 브랜드



변화된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공감하는 부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 드립니다.



진로, 학습,
소통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부모수업



만족도 95점이상
분야별
전문가 파견



학교별 맞춤
학부모아카데미
커리큘럼 제공



학교, 교육청 단위
학부모 온라인
단체연수 운영



NAVER

부모공감



☎ 교육문의 1522-8052



부모공감바로가기

현직 교사들이 만드는 교과연계 메이커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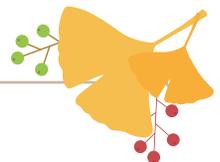
글. 김은영 융합교육사업부 선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함양과 미래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메이커교육 움직임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테크빌교육의 SW융합메이커교육 '브리콜라주'(Bricolage) 브랜드가 이러한 창의융합교육 과정들을 서울 사립초등학교인 경북초등학교 정규수업에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메이커교육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트로 재구성하다!

교과연계 메이커 TF 교사 인터뷰



Q1 메이커교육이란?

A 김반지 교사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되었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내가 처한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육이 메이커교육의 본질이 아닐까요?

Q2 교과연계 메이커 프로젝트를 통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A 전상현 교사

교과연계 메이커 프로젝트를 통해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들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교수 학습과정이 만들어졌어요. 이를 통해 우리 반 교실의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수업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단순히 만들고 끝나는 활동이 아닌 그 안에서 수업의 의미도 찾아보게 되고,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Q 3 앞으로의 메이커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A 최만 교사
메이커교육의 핵심은 오픈소스 활용, 메이커교육자 모임, 3D 프린터 활용이라 생각해요. 이러한 메이커 운동들이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만들고, 나눌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Q 4 가장 기억에 남는 개발 과정은?

A 김반지 교사
프로젝트 중에 엘리베이터 만들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는 처음 접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수학·발명·영재 등 다양한 융합프로그램을 접해 보았음에도 이 활동은 처음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는 도르래가 필수요소인데, 아쉽게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르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과와 연계를 할까 생각하다가 수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 착안해서 수학과목과 연계할 수 있었어요.

Q 5 앞으로 메이커교육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A 전상현 교사
캐터펄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을 여러 차례 수정하며 아이들이 재미있게 만들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5학년 2학기에 배우는 역사 중에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의 전쟁들은 성을 함락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어요. 캐터펄트를 접목시키면 아이들이 상대방의 '성'을 무너뜨리는 투석기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학습효과까지 얻는 것 같더라고요.

A 최만 교사
단순히 교과 과정에 있는 교육이 아니라 글로벌 기반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고 관심있는 분야를 아이들과 함께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가장 기대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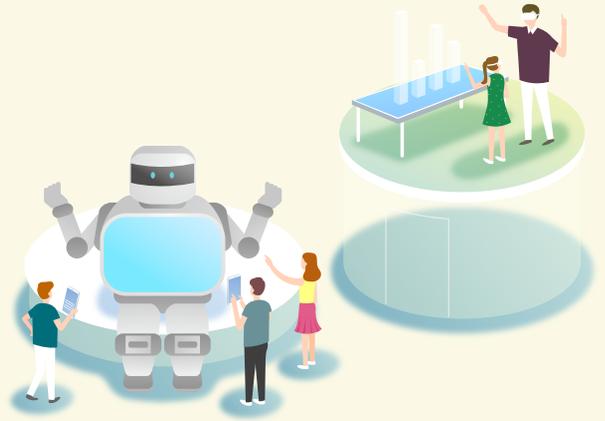
A 전상현 교사
메이커교육은 선생님들에게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거예요. 재료 준비부터 수업에서 활용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과정안과 아이디어들이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진다면 선생님들의 수고를 조금은 덜어줄 거라 생각이 되네요. ①

올해 10월 메이커키트 판매 예정

테크빌교육의 SW융합메이커 브랜드인 '브리콜라주'에서는 10월에 학교수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교과연계 메이커 키트가 출시 예정이다. 교과연계 메이커 키트는 각 프로젝트마다 학년별·교과별·단원별로 연계되어 학교수업에서 활용 가능하며, 학습자 수준에 맞도록 구성하였다. 메이커 키트는 교육 전문몰인 '티처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교수학습 과정안과 교과 키트가 함께 제공된다.

VR 분야, 한·중 기술 격차 존재하지 않는다

글. 이상엽 VR사업부 선임



2018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3E 베이징 국제 소비재 전자제품 박람회'는 전자제품(Electronic), 오락 체험(Entertainment), 혁신산업 인큐베이팅(Economic)을 키워드로 내세운 중국 수도권 내 최대의 전자 소비품 전시회다. 현실화되고 있는 4차 산업 기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한국과 중국은 VR 콘텐츠 분야와 VR 디바이스 분야에서 각각 0.8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중국 업체들에게서는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한국이 콘텐츠 위주의 VR 개발이라면 중국은 콘텐츠는 물론이고 디바이스 부분에서도 꾸준한 기술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안면인식과 인공지능 부분으로 한국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만한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개발·상용화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적 차이가 향후 안면인식 기술에서 주도권을 중국이 쥐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무엇보다 전시회에 출품된 QR코드 등의 결제시스템이 현지에서는 일상화되어 있으며, 자판기·편의점·식당 등 거의 모든 곳에서 QR코드와 페이스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부분에서 중국이 한국에 뒤쳐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

국은 결코 한국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IT 문화적으로 뒤쳐져 있지 않고 우리의 바로 뒤에서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 더 노력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풍부한 인력과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중국에게 VR 등 4차 산업에서는 기술우위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3E Expo 박람회 현장 '이모저모'

올해는 “스마트 기술이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智動全球, 慧享生活)”는 주제 하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서비스용 로봇, 전자제품,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 하드웨어 등 제품이 대거 전시됐다. 진공청소기 제조업체 샤오거우(小狗), 가정용 로봇기업 ECOVACS 등 중국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가전업체들이 스마트 제품을 전시하며 가전업계의 스마트화 열풍을 보여줬다. 참가 기업들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연계를 확대한 제품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

VR로 참가한 업체들은 주로 그래픽 지향 콘텐츠, 안전체험, 직업훈련,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소개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스는 QR 및 손 혈관 인증 방식으로 결제하는 무인 편의점 시스템으로, 국내에서 접할 수 없던 부분인지라 색다르게 느껴졌다. 국내에선 카카오가 카카오페이+QR을 선두로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디어로만 들어왔던 중국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 밖에 교육용 로봇도 전시됐다. 기존의 유아 교육형 로봇은 단순히 로봇이 아이를 가르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전시회에는 부모와 아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도록 보조역할을 하는 로봇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인공지능(AI)



카메라에 인식되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시간·장소 등의 정보와 함께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며, 중국에서는 이미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경찰의 수배범 검거와 같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무인판매기 시스템



중국에서 현금보다 많이 사용되는 QR코드를 통해 페이스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음료 및 도시락 등의 간편 먹거리를 판매하는 장비를 전시했다. QR코드로 인증하면 냉장기기 문의 락이 풀리고, 물건을 꺼내고 물을 닫으면 꺼낸 물건들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위의 자판기와는 조금 다르게 미리 등록된 페이스 시스템의 손 혈관 정보를 통한 방식으로 손바닥을 인식 위치에 올리면 손 혈관 정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콘텐츠와 연동하여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 테이블이라는 제품으로 전시장에는 모델하우스를 돌아보며 소품·벽지 등을 교체할 수 있는 콘셉트의 제품을 전시했다. 스마트 테이블을 실내건축 데이터와 연동하여 사용자가 쉽게 조작하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집의 내부를 확인하며 둘러보는 여타 모델하우스 콘텐츠와 비슷하나, 스마트 테이블을 연동하여 터치스크린 위에 손으로 잡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는 방식과 손으로 조작하는 방식의 두 가지 입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직관적이고 편한 조작의 UX를 제공했다. VR 콘텐츠와의 연동 또는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개발에 활용해 보아도 좋을 듯하다.



다중모션 인식은 카메라에 추적되는 많은 사람들의 동작을 동시에 인식하는 기술로 기존의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방식이 아닌 일반 RGB 카

메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인식률과 정확성을 나타냈지만 처리속도 문제로 출력 프레임이 낮은 것이 아쉬웠다.



MR/AR 기능개발 업체. 자동차 실내에서 휴대폰 또는 태블릿과 카메라로 손동작을 인식하여 볼륨조절 등의 간단한 기능들을 조작하는 시스

템을 개발했다. 카메라에 인식된 제스처를 판별하여 자동차의 간단한 기능 조작은 물론이며,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의 앱을 조작하는 기능이 있다.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글. 윤민영 티처빌연수사업부 선임

올해로 만 9년의 교직생활을 열정적으로 보내고 계신 김차명 선생님을 '티처빌이 간다!'가 만났다.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를 모토로 모인 교사공동체 '참샘스쿨'의 대표로서, 앞으로 더 많은 교사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교사의 성장을 향한 강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전국을 누비며 모든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과 희망을 주고 계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교사

학부 때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를 작년까지 교대에 출강하면서 늘 했어요. "어떤 이유로 교대에 왔는지 창피해하지 말자. 나처럼 빠른 취직을 위해 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대에 들어온 순간 이미 절반은 선생님이다." 처음부터 만들어진 교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노력과 단련의 시간을 거치며 교사로서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분명한 교육철학을 토대로 스스로 연구하면서 꾸준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마다 나무의 나이테가 더해지듯, 교사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통해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동료

2015년에 참쌤스쿨 1기를 모집했는데요, 처음에는 연수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수업에 활용하는 내용을 제가 가르쳐보려 했죠. 그런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임의 성격을 프로젝트팀으로 바꿨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거의 매일 모여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 교실 현수막, 방송 애니메이션, 계기 교육자료 등 우리의 그림이 쓰일 수 있는 영역들을 점차 넓혀갔습니다. 지금까지 4기가 모집되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력적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니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점점 신장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요즘엔 경기도교육청 웹툰, 2015 개정교육과정 3-4학년 사회과학 전 차시 비주얼씹킹 학습지 + 1분 정리 영상, 대변인실 업무포털 메인 이미지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참쌤스쿨 멤버들과 힘을 모아 하나씩 꾸준히 완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작업량으로 잠을 설쳐가면서 할 때가 많지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수고가 결국 우리의 모든 동료교사에게 유익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라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표와 운영진을 비롯한 모든 멤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참성장

저는 '어떻게 하면 젊은 밀레니얼 세대 교사들에게 동기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Dan C. Lortie(1975)는 40여 년 전에 교직에는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 '개인주의', 변화에 저항적인 '보수주의', 당연한 일에 치중하는 '현재주의'라는 교직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개인주의가 가장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분석하였고, 이를 보다 협력적인 문화로 바꿀 수 있다면 교사들의 교육 실천 및 학교 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정바울, 이승호, 2017)

Lortie의 연구와 후속 연구결과들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것이 바로 전문적 학습공동체입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을 따라 만들게 된 것이 '참쌤스쿨'입니다. 참쌤스쿨 안에서는 적어도 개인주의, 보수주의, 현재 주의가 없어요. 한국에서 그동안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소속된 교사들만 성장했어요. 만들어진 콘텐츠가 파급되지 않고 그 안에서만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를 깨버린 것이 참쌤스쿨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결국 교사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젊은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교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또 현장을 바꿀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약력 김차명

-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파견교사
- 인디스쿨 미디어콘텐츠 팀장
- 참쌤의 콘텐츠스쿨 운영자
- Visual Thinking 강사·저자
-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해외파견강사
- 티처빌 <참쌤의 그림으로 꾸미는 즐거운 교실> 강사



참목표

제 목표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교육정책의 방향을 교사중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거든요. 교사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를 둘러싼 학교의 환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가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틀림없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도 내 학교 소모임을 지원하고자 방문 신청해주신 학교에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명 '학교로 찾아가요!' 프로젝트예요. 연수, 캐리커처, 경기교육정책, 담소 등 모임에서 원하는 성격에 맞추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이유는 경기도 교육정책이나 학교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벌써 30개 이상의 학교를 방문했어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100개 학교에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교육감님들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모든 교육감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초등교사들의 고민과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청과 교사의 양방향 소통이 원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참도전

제 인생에 실패는 없어요. 피드백만 있을 뿐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남 탓, 내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물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플랜 B·C를 세우면 되니까요. 매번 이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실수도 잦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계획보다는 실천이 앞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을 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망하고 주저하기에는 무수한 도전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희망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①



EDUTECH FRONTIER

테크빌교육
에듀테크로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다!

테크빌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나눔을 통해
행복한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는
최고의 교육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을 생각한다.

고객의 성장과 발전을 우선으로 하며,
가치 있는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에게 최상의 만족과 감동을 주는
기업문화를 조성합니다.

사람을 키운다.

“기업의 미래는 사람이다” 라는 신념을
토대로 구성원에게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존중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을 바꾼다.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함께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며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주도하는
에듀테크 프런티어가 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전쟁 끝내기

글. 장경진 미래교육사업부 선임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올려대는 카톡,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모바일 게임은 아이들을 작은 화면 속에 가둬놓고 있다.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때면, 중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 HD행복연구소 최성애 박사에게 그 해답을 들어보자.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은 통제 그룹에 비해 뇌 신경 물질에 불균형을 보이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마트폰에 자주 접한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꺼진 상태라도 가까이에 있으면 인지능력 저하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접한 아이들의 경우 정서와 사회성을 관장하는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아 스스로의 감정조율이나 타인과의 소통능력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발산되는 푸른빛은 수면주기에 교란을 일으켜 수면에 필수적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고, 자극적인 정보와 소리 등이 교감신경계를 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신체 생리작용을 관장하는 시상하부에 영향을



약력 최성애 박사

- 국내최고 심리치료사
- HD행복연구소 소장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심리치료전문가
- 전 미국 미시간대학교 공과대학 심리학과 교수

저서

-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 《나와 우리 아이를 살리는 회복탄력성》 등

미쳐서 우울·불안·짜증·식욕 저하·배변 등 신진대사나 성장·체중·집중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는 기억력과 인지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은 뭔가 궁금하거나 알고 싶으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기억력을 활용하려 하지 않고 생각은 더욱 더 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해결력을 키울 필요가 없게 되니 쓰지 않는 두뇌는 퇴화되는 것이지요.

스마트폰 사용이 아이들의 학업성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공부에 집중을 못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스트레스입니다. 학업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갈등·외모·성적, 특히 부모의 갈등은 아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전두엽에 혈류가 가지 않아서 집중과 몰입을 하기 어렵고 지루함과 불안함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작정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서 학업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왜 받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스마트폰 이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축구·농구·수영·음악·곤충채집·바둑·체스 등 다양한 몰입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하고, 아이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이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인터넷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종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있는 행동을 무심코 하지는 않는지요? 아이들은 들은 대로가 아니라 본대로 배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흥밋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심심하고 지루하면 흥밋거리를 찾게 마련입니다. 따분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대응책을 마련해 둔 뒤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제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①



최성애 박사와 함께하는 스마트폰 전쟁 끝내기 <무료수강>



스마트폰 이용지도 및 사이버폭력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티처빌연수원에서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티처빌연수원 홈페이지 > 자율연수 > 무료연수 목록에서 신청
- 수강기간: 2018년 11월 30일까지



티처빌 무료과정
최성애 박사와 함께하는
스마트폰 전쟁 끝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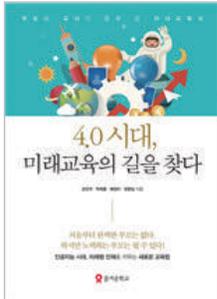
무수한 시행착오가 가능한 학교교육을 꿈꾸다!

#행복하고 #역동적인 #학교교육

글. 박향선 미래교육사업부 선임



윤중중학교 저자 강연회. (2018. 9. 4)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균형을 이뤄야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티처빌이 만든 부모교육 전문브랜드, 부모공감은 '아이들의 멋진 미래를 위해 우리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고민한 이야기를 《4.0시대, 미래교육의 길을 찾다》에 담았습니다. 부모가 느끼는 불안의 감정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4인의 저자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어른들이 불안하다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는 온 우주를 품듯이 가슴이 벅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자신보다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 방법이 서툴고 거칠지라도 말이죠. 가장 쉬운 길은 익숙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어서 부모는 어릴 때 배운 방식 그대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뒷바라지를 합니다. 자녀의 미래 성공을 위해 오늘의 희생쯤은 불가피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늘 힘들고 불안합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교육, 아이와 부모를 지치게 하는 이 길이 맞는 것일까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할까요? 이 책은 그런 의문점을 학교 안에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저자 배정미 엄마행복연구소 소장

학생과 함께 꿈꾸는 학교

현재 우리 교육은 선다형 시험의 줄 세우기에서 앞자리에 서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두 그룹의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들도 졸업 후 삶의 방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수능개혁 안에도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엇박자를 내며 기성 가치의 모순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입시 너머, 학교 너머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며, 수업에 열정을 쏟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지식의 활용 능력과 지식 구성 능력, 그리고 자신과 타인이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는 소통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노력하며 무수한 시행착오가 가능한 행복하고 역동적인 학교교육을 꿈꾸어 봅니다.



저자 정향심 구일고등학교 수석교사

미래, 쉽게 풀어보자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어느 날 기자가 성공적인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일구었는지 물었을 때, “내가 만약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자동차가 아니라 더 빨리 가는 마차를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상상력이 한 사람의 미래이자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상상하는 습관을 독자들이 가지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자 박재홍 (주)이에프에듀케이션퍼스트코리아 이사



2030년 대비, 미래역량 키르기

앞으로 12년 후인 2030년, 우리 아이들이 직업인으로 첫발을 내디딜 시점에 대해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초등학생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추구입니다. 미래인재인 청소년을 위해 학교와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름의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역량으로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재능으로 키워갈 진로역량, 도전과 열정의 기업가 정신, 사람을 위해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융합능력, 세계 속 인재로 살아갈 글로벌 역량을 제안합니다. 학부모와 선생님, 4명의 고민으로 시작한 의견에 여러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고민과 의견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①



저자 강진자 대영중학교 교감



디지털타임스 (2018. 06. 14)

테크빌교육 티처빌, 여름방학 초·중·고 교사 대상 교육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의 교사지원 통합 플랫폼 '티처빌'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힐링과 여행, 여행을 테마로 한 교육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힐링 테마 서비스에서는 △마음톡톡, 헤미스님을 만나다 △교사 예술애(愛) 빠지다 △조승연 작가의 WHY 궁금한 인문, 예술, 사회 이야기 △커피 인문학 등 8개 힐링 연수과정을 추천한다. 그림과 꽃을 통한 취미 나눔, 페이퍼크래프트 등 재충전과 치유를 위한 썸동네 힐링 콘텐츠와 취미 관련 티처몰 교구를 20~30% 할인해 교사에게 제공한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여름방학에 연수를 계획 중인 교사의 버킷리스트를 티처빌 이벤트 게시판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양키캔들, 영화관람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행사도 한다. 다음달 9일까지 야나두 기초영어, 다이나믹 일본어 회화, 301구로 끝내는 중국어회화 등 12개 여행을 테마로 한 연수 소개와 7월 23일까지 모두 9개의 국내 및 해외 여행테마 연수도 차례로 추천할 예정이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교육플랫폼사업부 이사는 “통합 플랫폼 티처빌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며 “더 쉽고 빠른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과 교구 할인전, 기획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허우영 기자

전자신문 (2018. 06. 26)

누구나 세울 수 있는 '평화의 소녀상' 만들어봐요



학생이 쉽게 만들 수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크빌교육이 운영하는 교육전문쇼핑몰 '티처몰'에서 평화의 소녀상 관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학교에서 평화의

소녀상 종이 공작으로 수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세계 곳곳에 소녀상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뭘까요. '평화의 소녀상'은 문종배 인천 검단고 미술교사가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 소녀상을 세우는 일에 제약이 많다는 뉴스를 보고 기획한 수업 교구입니다.

문 교사는 누구나 세울 수 있는 모두의 소녀상이 필요하다고 느껴 종이공작 형태로 수업 교구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역사, 윤리, 영어, 미술 등 다양한 교과목에 접목해 수업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융합수업을 통한 역사 바로알기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 교사는 학생이 쉽게 접근하도록 종이공작 형태 평화의 소녀상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교구를 교육전문소평몰 티처몰과 함께 제이커스 브랜드 상품으로 출시했습니다. 티처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상처를 위로하고,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작은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상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피해자 할머니께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평화의 소녀상' 캠페인을 8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직접 만든 평화의 소녀상 사진에 #평화의소녀상 #위안부피해자할머니 #소녀상캠페인 해시태그를 걸어 SNS에 올리면 됩니다.

SNS에 올린 평화의 소녀상 게시물을 쌤동네에 올려주면 베

스트샷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하는 사진 콘테스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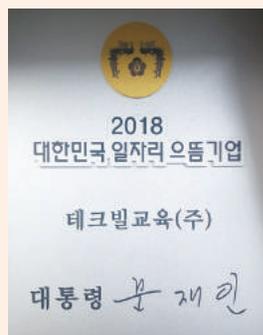
티처몰은 출사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 의미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개서와 선생님을 위한 수업지도안, 동영상 설명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교육플랫폼사업부 이사는 “제약이 많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소녀상을 세우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마련했다”면서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의 소녀상 종이공작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면서 “칼과 가위 없이 접착제만으로 안전한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선 기자

디지털데일리 (2018. 06. 28)

테크빌교육,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하는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

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제도이다.

테크빌교육은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 및 사세 확장에 따른 30% 이상 채용인원 증가, 이직률 감소 등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재직자의 51%가 여성 인력이며, 사업부의 주요 책임자인 여성관리자도 43% 이상으로 여성인력채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는 점도 반영됐

다. 지난해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워라밸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밖에 ▲출산휴가 후 자동 육아휴직제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정시퇴근 ▲가족친화프로그램 △징검다리 휴무제 등 고용여건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형세 테크빌교육 대표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남' 호칭제 및 직급 단순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생활균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일하는 방식을 바꿔 업무효율을 높이고, 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DB분석,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굴 및 국민 추천을 통해 후보기업을 발굴하고, 현장 조사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24일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대호 기자

지디넷코리아 (2018. 07. 25)

"마인크래프트로 코딩 배우자"... 테크빌교육, M:EE 출간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은 소프트웨어(SW) 코딩 학습서 '메이크코드 &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코딩 학습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개발한 컴퓨터 과학 학습플랫폼인 메이크코드와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M:EE)을 활용한 SW코딩 학습법을 알려준다.

입문편은 윈도우 10에서의 M:EE 사용환경 설정 및 선생님들을 위한 클래스룸 모드를 부록으로 담았다. M:EE의 기본 기능을 익힌 후 농장을 만들거나 광물을 수집하고, 간단한 건축물을 만드는 코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활용편은 컴퓨터과학의 원리를 활용해 미로를 만들어 탈출하거나 복잡한 건축물을 짓고, 직접 미니 게임을 만들어 체험하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메이크코드 &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 시리즈는 게임 활용 교육을 연구하는 현직 교사들의 모임인 '스티브코딩'의 나상호, 백순훈, 신윤철, 이상민, 최성권 선생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구매는 교육 전문 쇼핑몰인 티처몰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권 당 1만 9천원이다.

테크빌교육은 2016년 '미래부 SW창의캠프'를 시작으로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꾸준히 SW융합교육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알기쉬운 코딩' 시리즈 등 SW교육과 다양한 분야를 결합한 융합교육 도서를 펴내고 있다.

임유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2018. 07. 27)

테크빌교육-브레이너리, 메이커 교육 위한 교사 워크숍 개최

테크빌교육은 8월 1~2일 메이커 교육 전문기업 브레이너리와 함께 수림아트센터에서 '메이커 교육을 위한 교사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메이커 교육은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이끄는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다. 이번 행사는 세미나와 워크숍 두 가지 형태로 구성해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똑같이 만드는 교육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회사는 전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동시에 진행되는 세미나와 워크숍 중 하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세미나에서 △메이커 교육의 가치와 적용방안 △메이커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방법 △메이커 스페이스의 구축방안 △수업운영 및 관리방안 △메이커 수업사례 △메이킹을 위한 피칭 등 실무중심의 내용을 소개한다.



워크숍에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메이커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메이커 키트를 체험하고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다.

최영인 테크빌교육 융합교육사업부 상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꼭 필요한 메이커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교사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메이커 교육의 표준화 작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비즈트리뷰 (2018. 08. 09)

테크빌교육 '즐거워학교', 특성화고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삼고초려' 프로젝트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은 학생교육 전문 브랜드 즐거워학교가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인 '삼고초려' 프로젝트를 개설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즐거워학교는 진로교육 전문기업인 커리어에듀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나를 찾고(go), 직업을 찾고(go), 미래를 찾고(go), 선택(Choice) 하도록 격려(勵)한다는 의미의 '삼고초려'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자기탐색과 자

기발견, 다양한 직업의 이해를 통해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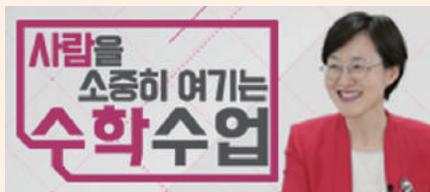
특히 실습위주 참여식 교육으로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동기부여를 높여 주도적으로 진로 계획을 설계하도록 구성했다.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과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해 취업 리턴현상을 예방하고, 학과 맞춤형 교육으로 직무에 맞는 기업과 직업을 선택하도록 조력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박영민 테크빌교육 미래교육사업부 상무는 “대다수 특성화고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현장에서 취업지도를 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즐거워학교는 커리어에듀온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현 기자

에듀동아 (2018. 08. 13)

테크빌교육 티처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수학 수업' 직무연수 개설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이 운영하는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이하 티처빌)'은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수학 수업'을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과정은 교사가 학생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수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학생들에게도 사람이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강사로 참여한 최혜경

대구 대명초등학교 수석교사는 지난해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수상했고, 30여 년 간 교직에서 체득한 효과적인 수업 방식을 전국의 교사들에게 전해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통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수학 수업'은 최혜경 교사와 놀이수업 전문가인 나승빈 교사 등 현직교사 5명이 패널로 참여해 수학 수업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30강으로 이뤄진 연수는 수학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말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학생들이 '수와 연산'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수업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학생들의 생각에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 필요한 수학 교과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연수는 티처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연수과정을 마치면 2학점이 부여된다.

최혜경 교사는 "아이들의 작은 호기심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수가 학생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수업을 설계하고 선생님과 학생 모두 행복한 수업을 만들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티처빌은 선생님의 베스트 연수를 SNS 채널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30명)과 최다공유자 3명에게 BHC 치킨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자현 인턴기자

보안뉴스 (2018. 08. 13)

정보보호 공시제도 참여 1호 테크빌교육의 보안분투기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공시제도. 중복 기업을 제외하면 현재 총 1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한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 및 활동사항을 통해 해당 기업들의 보안강화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12월 정보보호 공시제도 시행 이후 가장 먼저 참여한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은 이러닝 콘텐츠, 스마트 콘텐츠 등 교육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을 운영하고,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테크빌교육은 지난해 3월부터 정보보호 인력 총원, 컨설팅 수행,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 제작 등 전 임직원의 정보자산 보호의식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개인정보보호 정기교육 및 사내정보보안 준수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각종 시스템 도입 및 보안점검 확대 실시 등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힘써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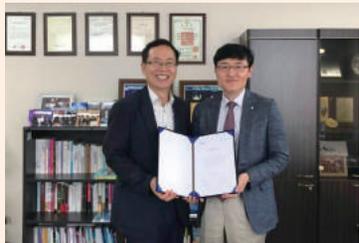
지난 3월 20일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하 IS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100명 이하의 인력 규모에서 정보보호 공시에 2년 연속 참여하며 적극적인 정보보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의 귀감이 될 만하다는 평가다.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테크빌교육은 "회사 내부적으로는 정보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

에듀동아 (2018. 08. 22)

테크빌교육 즐거운학교, 한국드라마치료연구소와 학생 마음건강 위해 협력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이 “한국드라마치료연구소와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테크빌교육은 자사의 학생교육 전문 브랜드인 즐거운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학교연극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 즐거운학교의 학교연극 프로그램은 심리연극이라는 특별한 장르를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맞춤형 교육연극이다. 연극주제는 △학교폭력예방 △학업중단예방 △흡

연예방 △부모자녀갈등 △사제소통 등 다양하며, 각 학교의 특성에 맞춰 진행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황들을 연극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강의식 예방 교육보다 학생들의 몰입도와 설득력이 강해 교육적 효과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즐거운학교는 학교연극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정 및 학교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님 테크빌교육 미래교육사업부 상무는 “학교연극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한국드라마치료연구소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교육서비스 플랫폼인 즐거운학교는 학교의 특성 및 예산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증된 다양한 학생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자현 인턴기자

머니S (2018. 08. 23)

테크빌교육, '마이크로비트와 함께하는 만지작 코딩' 출간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이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SW코딩 학습서 '마이크로비트와 함께하는 만지작 코딩'을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이크로비트(Micro:bit)'는 영국의 BBC 방송사가 아이들로 하여금 코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이다. 책 '마이크로비트와 함께하는 만지작 코딩'은 간단하게 마이크로비트의 구조와 메이코드 사용 방법을 익힌 후,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피지컬컴퓨팅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나의 기분이나 소개를 LED로 출력하거나 밝기 센서, 온도 센서를 사용한 경보기나 측정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덧셈이나 뺄셈을 이용해 점수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한편 테크빌교육은 2016년부터 '미래부 SW창의캠프'를 시작으로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꾸준히 SW융합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알기쉬운 코딩' 시리즈 등 SW교육과 다양한 분야를 결합한 융합교육 도서를 펴내고 있다. ①

강인귀 기자

2018년 티처빌연수원 하반기 학사 일정

| 기수 | 학점 | 연수 시작일 | 연수 종료일 | 출석고사 | 이수증발급 | |
|-----|-----|---------|---------|------------|---------|------------|
| 8기 | 4학점 | 09월 05일 | 10월 16일 | 10월 13일(토) | 10월 19일 | |
| | 3학점 | 08월 22일 | 09월 18일 | - | 09월 20일 | |
| | | 09월 12일 | 10월 16일 | | 10월 18일 | |
| | 2학점 | 08월 22일 | 09월 11일 | | 09월 13일 | |
| | | 09월 05일 | 10월 02일 | | 10월 04일 | |
| | | 09월 19일 | 10월 16일 | | 10월 18일 | |
| | 1학점 | 08월 29일 | 09월 11일 | | 09월 12일 | |
| | | 09월 12일 | 10월 02일 | | 10월 04일 | |
| | | 09월 19일 | 10월 10일 | | 10월 11일 | |
| | 9기 | 4학점 | 10월 10일 | | 11월 13일 | 11월 10일(토) |
| 3학점 | | 10월 10일 | 11월 06일 | | - | 11월 08일 |
| | | 10월 24일 | 11월 20일 | 11월 22일 | | |
| 2학점 | | 10월 10일 | 10월 30일 | 11월 01일 | | |
| | | 10월 24일 | 11월 13일 | 11월 15일 | | |
| 1학점 | | 10월 10일 | 10월 23일 | 10월 24일 | | |
| | | 10월 24일 | 11월 06일 | 11월 07일 | | |
| 10기 | | 4학점 | 11월 07일 | 12월 11일 | | 12월 08일(토) |
| | 3학점 | 11월 07일 | 12월 04일 | - | | 12월 06일 |
| | | 11월 21일 | 12월 18일 | | 12월 20일 | |
| | 2학점 | 11월 07일 | 11월 27일 | | 11월 29일 | |
| | | 11월 21일 | 12월 11일 | | 12월 13일 | |
| | | 11월 28일 | 12월 18일 | | 12월 20일 | |
| | 1학점 | 11월 07일 | 11월 20일 | | 11월 21일 | |
| | | 11월 21일 | 12월 04일 | | 12월 05일 | |
| | | 12월 05일 | 12월 18일 | | 12월 19일 | |

○ 출석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달 전부터 가능



신규과정 소개

강의 개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메이커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학교에서의 사례 및 활용법을 제공하는 과정

강의 특징

- 메이커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학교급별 사례 제시
- 메이커 스페이스 내 주요 활용 도구 및 장비 소개와 관리법 제시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3D 모델링 프로그램 실습 제시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교육!

1학점

쉽고, 재미있게
시작하는
학교에서의
메이커교육



정중욱

· 브레이너리 대표

2015 개정교육과정과 미래교육을 위한

1학점

교육과정-수업-
평가-기록을
일체화하는
과정중심평가



유영식

· 교육부 주관 과정중심 수행평가 및 학생평가 교원 연수 강사

강의 개요

2015 개정교육과정, 미래교육을 위한 평가 방법인 “과정중심평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Tip을 제공하는 과정

강의 특징

- 교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과정중심평가 실천 Tip 제공
- 실제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동영상 강의
-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이론을 제공하는 Flash 강의



강의 개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말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수업, 선생님도 학생도 편안하고 행복한 수업 만들기.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수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학생들에게도 사람이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과정

강의 특징

- 학생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교과에 녹이는 노하우!
- 학생들의 반응을 소중히 자료로 여기며 이해를 돕는 방법 제시!



학생의 생각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수업!

2학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수학 수업



최혜경

· 대구 대명초등학교 수석교사



떠나자, 즐기자, 느끼자,

가을 그리고 축제

글. 이성희 마케팅사업부 책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이 되면, 낭만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가 곳곳에서 열린다. 축제 성수기인 가을, 붉게 물든 단풍을 두 눈에 담고 선선한 가을바람을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가을 시즌의 축제들을 모아 소개한다. 너무 더워 올 여름 휴가를 가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함께 가을축제 속으로 떠나는 여행계획을 세워보자.



출처-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9월 28일~10월 7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아누스, 축제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경북 탈춤공원, 문화의 거리 등 안동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12개 중요 무형문화재 단체 공연과 중국·터키·볼리비아 등 12개국의 외국 탈춤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전통문화 콘텐츠 축제다. 뿐만 아니라 세계탈놀이경연대회, 미술대전, 탈놀이대동난장, 나만의 탈 만들기, 탈춤 따라 배우기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안동민속축제가 동시에 열려 차전놀이·뽕다리밟기 등 안동의 전통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문의: 054-841-6397~8 / www.maskdance.com)



출처-김제지평선축제

2. 김제지평선축제 10월 5~9일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황금빛 지평선의 아름다움 속에서 역동적이고 생생한 프로그램들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전통 농경문화 체험 축제다. 올해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전북 김제시 벽골제 일원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드넓은 평야 지평선을 테마로 자연환경과 풍습, 역사 등을 보전한 가운데 자연 친화적으로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과 다양한 감동, 교육성을 겸비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문의: 063-540-3031 / <http://festival.gimje.go.kr>)

3. 고양호수예술축제 10월 4~7일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고양호수예술축제는 호수·거리·자연·사람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거리에 슬축제다. '거리예술, 평화를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양호수공원 및 고양시 주요거리(라페스타·웨스턴돔·일산문화공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심혈을 기울여 선발한 해외 초청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식 초청작,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지닌 자유 참가작으로 총 3개 부분 39개 팀과 다양한 거리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의: 031-960-9722, 9724 / www.gylaf.kr)



출처-고양호수예술축제



출처-부산국제영화제

4. 부산국제영화제 10월 4~13일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약 70개국, 300여 편의 작품이 약 30개관 극장에서 상영되며, 1만여 명의 게스트와 20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섹션은 '갈라 프레젠테이션', '아시아 영화의 창', '뉴커런츠', '플래시 포워드', '월드 시네마',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한국영화 회고전', '와이드 앵글', '오픈 시네마', '특별기획 프로그램', '미드나잇 패션' 등 총 12개다.

(문의: 1688-3010, www.biff.kr)





5. 수원화성문화제 10월 5~7일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효심과 부국강병의 원대한 꿈으로 축성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수원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인 정조대왕 능행차를 필두로 혜경궁 홍씨 진찬연 등의 재현행사, 그리고 수원천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수원사랑 등불축제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이 제안한 프로그램 21개를 포함해 총 60개 프로그램이 화성행궁·연무대·수원천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진행된다.

(문의: 031-290-3622~5 / www.shcf.kr)



6. 서울세계불꽃축제 10월 6일

10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가을 하늘을 화려한 불꽃으로 수놓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매년 세계적인 수준의 불꽃 전문 기업들이 초청되어 여의도의 밤하늘을 무대로 환상적인 불꽃 연출을 선보이며, 주간에도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멀티미디어 불꽃쇼'는 불꽃과 영상, 음악, 레이저 연출이 결합된 아시아 최고 수준의 불꽃쇼로써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여의도를 찾는다. 저녁 7시 20분부터 스페인, 캐나다, 한국이 차례로 화려한 불꽃쇼를 선보인다. 불꽃쇼가 모두 끝난 후에는 애프터 DJ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문의: www.hanwhafireworks.com)



출처-자라섬재즈페스티벌



7. 자라섬재즈페스티벌 10월 12~14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자라섬은 일상을 떠나 그윽하고 황홀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명실상부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은 제15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다. 잔디밭에 누워 쏟아지는 별을 맞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최고의 재즈 연주를 듣는 시간. 2018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된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친구·연인 등과 훌쩍 떠나는 콘셉트의 피크닉형 음악축제로 성장했다. 축제 기간에는 가평의 농산물을 이용한 재즈막걸리·뱅쇼를 제작하며 가평 팜파티를 열기도 한다.

(문의: 031-581-2813~4 / www.jarasumjazz.com)



출처-순천만갈대축제

8. 순천만갈대축제 11월 2~4일

순천만은 800만 평의 연안 습지로 갯벌에 펼쳐져 있는 갈대밭이 40만 평에 달하고 S자형 수로가 더해져 장관을 이루는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다. 특히 가을에 펼쳐지는 황금빛 갈대 물결과 수많은 철새가 찾는 순천만은 가을에 꼭 가봐야 할 필수 관광지다. 갈대밭체험·갯벌체험·철새탐방 등 자연 관련 체험행사, 포크콘서트·재즈공연·거리공연 등 음악 관련 행사, 먹거리 장터·지역 특산물 판매 등 음식 관련 행사, 순천만 갈대길 걷기대회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가 펼쳐진다. 올해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순천만 동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문의: 061-749-6072 / <http://www.suncheonbay.go.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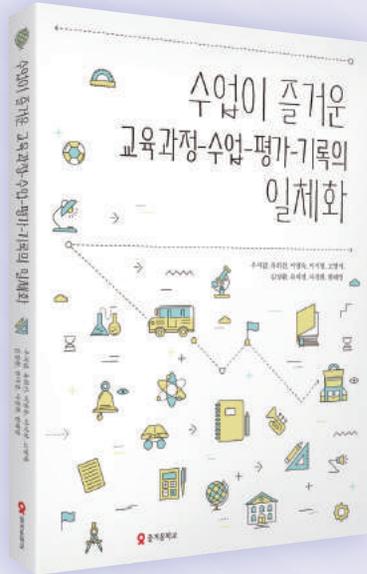
수업이 즐거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지금 학교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교사도 과거의 교수법에서 새로운 전문성을 갖추길 원하고 있다. 변화의 현장에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교육 목적과 수업 방법, 변화하는 교육 현장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학생이었던 시대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학교 교육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변화가 있다. 건물·운동장·학급 정원수 같은 눈에 띄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수업의 방법 등 교육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와 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변화도 많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더 많은 변화가 진행 중이다. 중등은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한 학년을 평가 없이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되고 있다. 지식과 경쟁 중심이던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찾게 한다는 목적 아래 평가 없이 진행되는 자유학년제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교사도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던 과거의 교수법에서 새로운 전문성을 갖추길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잘 짜인 교과서로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을 했다면, 교과서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사 자신만의 새로운 수업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업에 따라 평가와 기록의 방법도 달라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저자: 우치걸 외 출판사: 즐거운학교

정을 면밀히 살피고 관찰하여 평가하고, 성장의 과정을 오히려 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 책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위해 고민하는 전국의 중·고등 교사들을 위해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 수업, 비주얼씹기 수업, 하브루타 수업 등 다양한 수업과 평가, 기록의 사례를 담고 있다. 이 책에 담은 수업 자료와 사례가 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교사들의 실천으로 교육 현장에서 빛을 발하길 바란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연구회 안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연구회’는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중심수업 및 과정중심평가와 기록 방안에 대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시키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학습 모임입니다.

<https://band.us/@wv>



쌤동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수업 자료실에서 다양한 수업사례를 공유합니다.

<http://ssam.teacherville.co.kr/aabb>



하브루타, 질문 수업에 다시 질문하다

“교사나 학생 모두가 인간이며, 누구나 배움의 열정이 있고 스스로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언어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존재,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존재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브루타’나 ‘질문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많았다면, 이제는 교실 현장에서 하브루타나 질문 수업을 실천하면서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질문 수업의 요소들, 그리고 수업 단계별로 선생님들의 궁금증과 의문들을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책에 소개되는 수업기법은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수업기법들을 변형한 것이다. 이 수업기법들은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질문 놀이와 이론들, 배움의 공

학교와 마을이 하나되는

전통놀이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재미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 빈 곳을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서 놀이 문화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는 재미있는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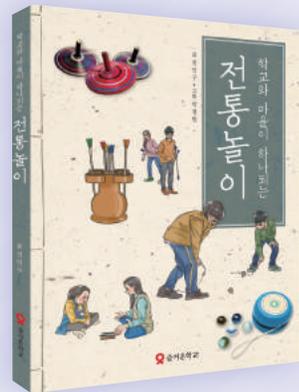
학교에서는 다양한 놀이수업을 한다. 놀이를 통해 체력·순발력·민첩성 같은 신체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고, 아이들에게 협동심도 길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놀이시간을 좋아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교실 안팎에서 수업에 다양한 놀이를 접목한다. 하지만 놀 교사의 지도하에 새로운 놀이를 하긴 어렵다. 좁은 공간에서도 교사의 지도가 늘 필요하지 않은 놀이를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중간놀이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원 없이 뛰놀 수 있을 것이다. 전인구 선생님은 전통놀이를 학교 구석구석에 그려 둔다면 우리 고유의 놀이를 알려줄 수도 있고, 아이들도 언제나



저자 양경은 출판사 문장학교

동체, 협동학습의 형태, 하브루타,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여러 철학을 녹여서 만들었다.

질문과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수업기법들은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하였다. 우리가 걸어온 수업 전략들을 더듬어 보면서 선생님들만의 새롭고 행복한 수업의 길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저자 전인구 출판사 문장학교

달려 나가 즐겁게 놀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학교에 전통놀이를 그려 두고, 놀이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학교는 조금씩 세대를 아우르고, 마을을 품는 공간이 되었다. 이 책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을 아우르는 전통놀이를 담고 있다.

놀이방법을 잊어버린 어른을 위해 놀이 도면과 그리는 방법을 순서대로 담았고, 놀이의 규칙을 사진으로 보여주어 이해를 도왔다. 저자가 직접 놀이를 적용해 보며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상세히 기록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

1. 개학

권선생 단상툰

그림. 최성권
청주 증안초등학교 선생님



butigi:7 파리가 그려넣었다가 뺐다..

2. 영어수업



butigi:7 못 알아들을까봐 한국어 쓰는 척.



3. 레크리에이션



butigi:7 한 자리에 있는게 재밌었다.



4. 버스



butigi:7 본인은 못 챙김.

티처빌 플랫폼 '쌤동네'에서 4컷 웹툰 '권선생 단상툰'을 연재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이모티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 쿠카'와 밴드 스티커 '수줍은 눈토끼, 토몽이'를 출시하는 등 그림 그리는 교사 권선생입니다. 저서로는 '쿠카의 코딩 크래프트', '메이크코드&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이 있습니다.



쌤동네

쌤동네는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사 지원 콘텐츠
공유 플랫폼입니다.



교사 수업노하우, 취미
콘텐츠로 누적/확산



콘텐츠를 통한
동료 교사와의 소통



모임 지원 및 다양한
모임 정보 제공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

우리 학교 쌤들을 위한 ★ 오프라인 모임 지원!

오프라인 모임을 쌤동네 그룹채널로 운영하시면,
모임 운영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드립니다!

교사 학습공동체뿐 아니라 교양, 취미까지 교사 모임이면 모두 지원해드려요.



장소 및 물품 지원

- 현수막 제작 지원
- 명함 제작 지원
- 공개 오프라인 강연 시 장소 제공 (서울 역삼)



쌤동네
그룹채널의
첫 오프라인 모임
진행 시, 과자 종합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학습 지원

- 티처빌 연수 및 티처몰 교구 할인
- '교사학습공동체' 도서 증정
- 교사 전문성 신장 오프라인 강연 무료 초청



모집 및 홍보 지원

- 티처빌 50만 회원 대상 홍보
- 티처빌 홈/페이스북/정기메일
- 오프라인 강연 시 모집 지원



연수/출판 지원

- 우리 모임의 연구 결과물이 연수로 만들어지고 도서로 출간될 수 있도록 쌤동네가 지원합니다.

▶ 도서 선정작은 현재 출판 준비중입니다.

2017년 지원 프로그램 당선 연수



그룹채널
만드는 법
알아보기



<http://ssam.teacherville.co.kr/ssams@3581>

오프라인
모임 지원
신청하기



<http://ssam.teacherville.co.kr/ssamdn@3613>



micro:bit

마이크로비트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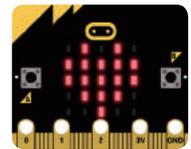
만지작 코딩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메이크코드MakeCode로

코딩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마이크로비트micro:bit로 실제 체험해보는

만지작 코딩!



메이코드와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SW코딩 학습서입니다.

다양한 센서와 LED, 블루투스 등을 내장하고 있어 피지컬컴퓨팅부터 IoT 프로그래밍까지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비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코딩 플랫폼 **메이코드**의 블록 코딩을 이용하여 실생활에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